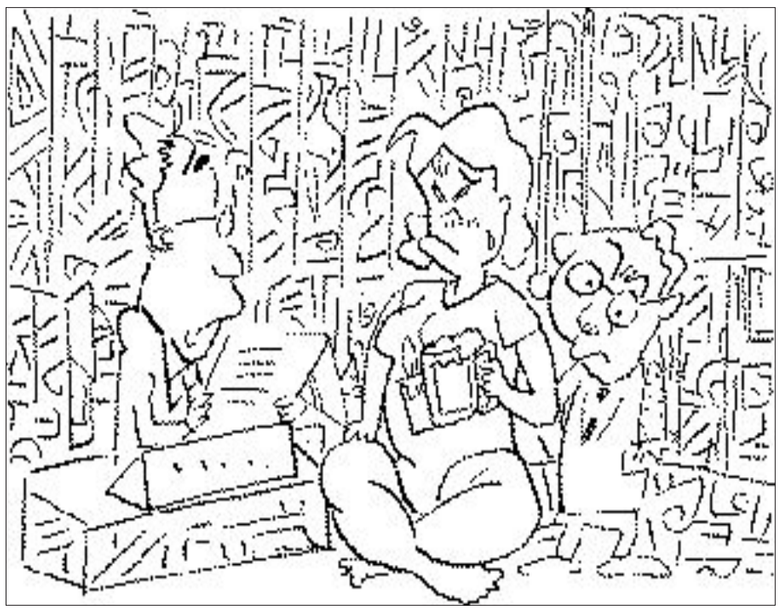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61 >



찾아보세요 펜촉, 열대어, 당근, 촛불, 종이배, 바늘, 새, 성냥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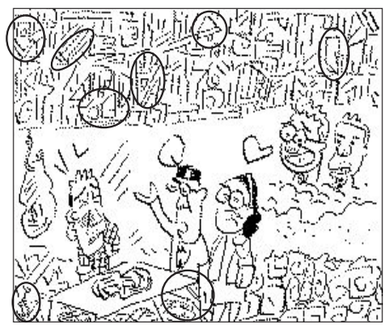
다이어트

중년부인이 다이어트를 위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 : "부인 식사는 과일 1개, 샐러드를 곁들인 야채와 그리고 잡곡밥 1공기로 식사를 하세요."

부인 : 한참 듣고있더니 궁금한 듯이 질문했다.

"그런데 빵은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지난주 정답

송사리, 펜촉, 알파벳 A자, 못, 팽이, 열대어, 셔틀콕, 새집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성상기 〈광주시 서구 쌍촌동〉 최상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월 23일 광주 가스 대폭발 … 휴일 덮친 날벼락

1992년 2월 23일 오후 5시55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폭발 굉음, 지상 100m ·반경 50m 치솟는 불기둥, 인근지역을 뒤덮은 유리 파편. 대피 안내방송을 듣고 놀라 우는 아이의 기저귀와 우유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뜀박질해 빠져나오는 주민들, 공부하다 대피하는 학생들. 전쟁터였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제 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평온한 일요일 저녁이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가스 저장탱크가 불에 타 폭발,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인근 가옥이 날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심한 교통 체증에 광주·전남 일부 지역 13만2천여 수용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빚어졌고 가족·친척의 안부를 묻는 시외전화가 쇄도했다.

30t급 LPG 저장탱크가 연쇄 폭발하면서 주민 2만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관 등 15명이 부상당하고 3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사고는 탱크로리 운전사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운전 실수에서 비롯됐다. 탱크로리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탱크 로리가 경사진 내리막길을 굴러 저장 탱크와 부딪히면서 불꽃이 발생했고 인근 저장 탱크로 번지면서 연쇄 폭발했다. 불길은 하루가 지난 24일 오후에야 완전히 잡혔다.

당시 언론에서는 "회사의 자체 방화 시설과 안전 대책이 소홀했고 대형 가스 사고에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전근대적인 소화 장비와 진화 작업이 주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양도시가스에서 불과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고층 아파트군과 주택가가 위치했다는 점에서 도시 계획이 단견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 뒤 인근 주민들은 가스 저장소 즉각 이전을 요구했다. 현재 해양도시가스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으로 옮겼다.

15년전 사고지만 주민들은 당시 사고만 생각하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해양도시가스측도 그 내용만 나오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지금도 회사앞에는 그날을 잊지말자는 의미의 표지석이 세워져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불길이 치솟고 있는 당시 해양도시가스 사고 현장, 사진 오른쪽은 폭발 진동으로 산산조각난 인근아파트 유리창. 〈광주일보 자료사진〉

뉴스퀴즈

52. 제57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감독의 '싸이보그지만 괜찮아'가 특별상인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알프레드 바우어상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기법을 정착시킨 촬영감독의 이름을 딴 상으로 베를린영화제 8대 본상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미 지난 2001년 '공동경비구역 JSA'를 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에 출품했으며 지난 2004년에는 칸 영화제에서 '올드 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① 박찬욱 ② 김기덕 ③ 강우석 ④ 임권택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1일(음 1월 4일 丙戌)

子 36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48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60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다. 72년생 祖上의 墓를 찾아보라 마음이 평안하리라. 84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07, 37

丑 37년생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49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61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73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 85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 05, 34

寅 38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0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2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74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7, 26

卯 39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도 말라 맹독이 될 것이다. 51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3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5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3, 38

辰 40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다. 52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4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6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29

巳 41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 53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65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7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복하다. 행운의 숫자 : 14, 40

午 42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일을 잘하라. 54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 오만은 금물이다. 66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해야 손실이 적다. 78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 04, 33

未 43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55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나 재물은 있다. 67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79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人德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2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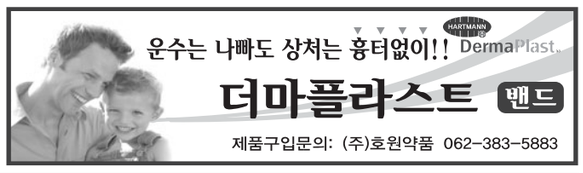
申 44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6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8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80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12, 27

酉 45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거라. 57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은 하리라. 69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1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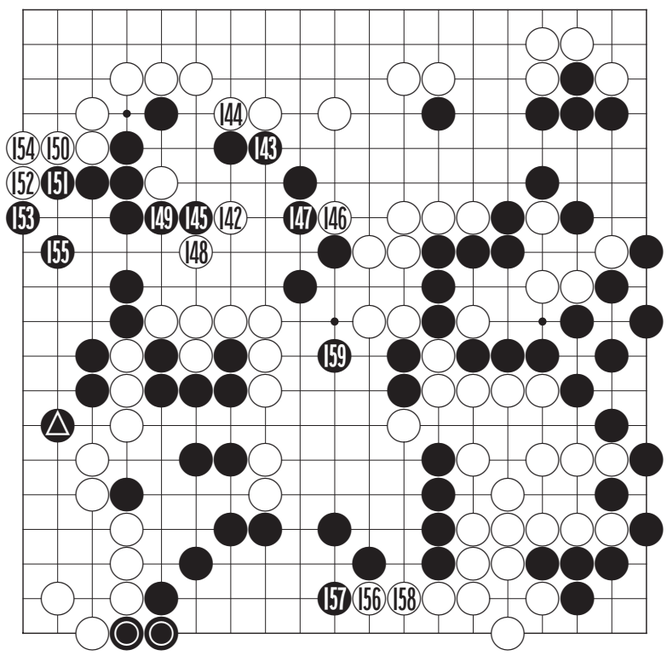
戌 46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58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70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08, 30

亥 47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59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71년생 걱정을 버려라 생각했던 걱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83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 2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바둑대회 중등부결승전



승리를 다져가는 백 10보(142~159)

白 윤용희 〈비아중 1〉 黑 권재구 〈문성중 1〉

'끝내기'에는 한치도 빈틈이 없는 정확한 수읽기,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정신력이 요구된다.

노장기사들이 젊은기사들을 역전패를 자주 당하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후반에 접어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권재구군의 실수가 잦아지고 있다.

전보에서도 말한 것처럼 흑 ⓐ는 큰 곳이기는 하나 급한 곳은 아니었다.

이곳을 두려면 흑 ◉로 젖혀잇지 말고 이곳을 두어야 했다.

그랬으면 백도 손을 빼기가 힘들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흑 ⓐ로는 하변 158의 곳을 역으로 막아 역끝내기를 하는 것이 컷던 것이다.

흑의 실수를 딛고 윤용희군이 신바람을 내며 착착 승리를 다져가고 있다.

142가 기분좋은 선수148까지 선수로 집될 곳을 없앤 다음 150으로 내려서 152로 젖혀이은 것도 역시 끝내기의 요령이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큰 곳인 하변 156으로 달려 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흑 159는 최후의 승부수.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日 야마시타, 십단전 도전권 획득

야마시타 케이고 9단이 최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45기 일본 십단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요다 노리모토 9단을 291수 만에 흑 6집 반으로 꺾고 십단전 도전권을 따냈다.

야마시타 9단은 다음달 8일 십단 타이틀 보유자인 조치훈 9단과 도전 5번기를 시작한다.

조 9단은 현재 십단전 2연패를 기록중이다. 야마시타 9단은 전기 대회에서 조 9단에게 1승3패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주최하는 일본 서열 4위 기전인 십단전의 우승상금은 1억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45>

A little bird told me so

그냥 들었어요

A : Who's going to get the promotion?
B : Mr. Park.
A : How do you know?
B : **A little bird told me so.**

A : 누가 승진 할까?
B : 미스터 박이야.
A : 어떻게 알았지?
B : **그냥 귀에 들렸어.**

promotion : 승진
A little bird told me so.
=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 I have my sources.
= I heard a little bird sing so.
= A little bird has told 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45>

もっと安い店(みせ)があるんですか?

더 싼 가게가 있는 겁니까?

A : 電氣製品(でんきせいひん)で有名(ゆうめい)なところは何と言っても秋葉原(あきはばら)ですよね。
B : ええ、もちろん今でも一番有名(ゆうめい)ですが、一番安い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
A : そうなんですか。**もっと安い店(みせ)があるんですか?**
B : 最近(さいきん)は價格破壞(かかくはかい)であちこちに大型(おおがた)ディスカウントショップができていますから。

A : 전기제품으로 유명한 곳은 뭐니뭐니해도 아키하바라죠?
B : 예. 물론 지금도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싼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A : 그렇습니까? **더 싼 가게가 있는 겁니까?**
B : 요즘은 가격파괴로 여기저기에 대형 디스카운트-샵이 생기고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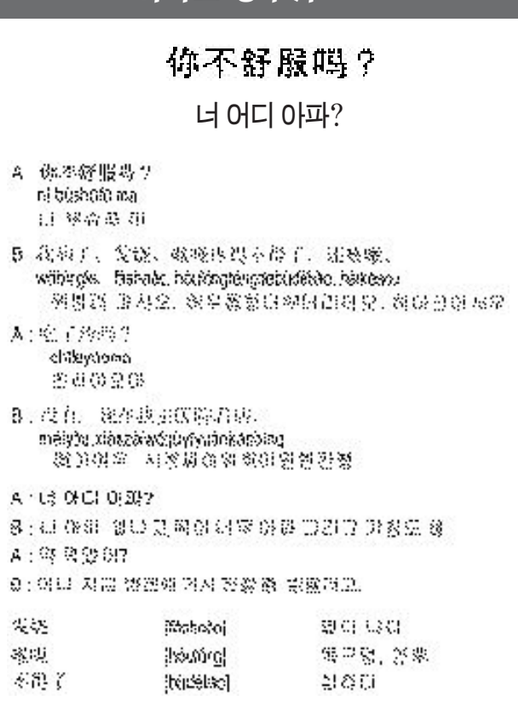
電氣製品(でんきせいひん) : 전기제품
有名(ゆうめい) : 유명
何と言っても : 뭐니뭐니해도
もちろん : 물론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6>

你不舒服嗎?

너 어디 아파?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63>

面 目 (면 목)

얼굴 면, 눈 목

면목(面目)은 글자 그대로는 얼굴과 눈이다. 얼굴을 들 수 없고,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뜻이다. 흔히 "면목이 없다" 또는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해하성에서 빠져나온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한나라 군사의 추격을 피하여 동쪽으로 오강(烏江)을 건너려 할 때 남아있는 군사는 겨우 기마병 20여 기 뿐이었다. 마침 배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던 사람이 말하길, "강동(江東) 땅이 좁다지만 사방 천리나 되고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충분히 왕노릇 하실만한 곳이니 빨리 건너십시오. 한나라 군사가 닥치면 건널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항우가 웃으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어찌 건너겠는가? 나는 전에 강동의 젊은이 8천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는데, 지금 그들은 한명도 돌아오지 못했네. 비록 강동의 어른 이나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아 준다고 해도 내 무슨 면목(面目)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을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네."라고 하였다. 항우는 마지막까지 한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쳐서 죽고 말았다. (史記·項羽本紀)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